

르포

패션 크루로 함께했던 나의 평창 동계올림픽

〈Passion Crew〉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인면조가 춤추던 ‘충격적’ 장면도 지난 17일 간의 치열한 여정으로 이미 희미해진 듯하다. 올림픽의 주인공은 당연히 선수들이지만 그들만으로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오천여 명의 Passion Crew(자원봉사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곳곳에서 끝까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된 열정’을 보여주었다. 필자 또한 Passion Crew로 올림픽과 함께했다. TV 중계로만 접하던 ‘남의’ 축제였던 올림픽은 1월 31일부터 2월 25일 폐막까지,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도우며 숨 가쁘게 뛰는 동안 ‘나의’ 올림픽이 됐다. 그 한 달 동안의 기억을 소개한다.

아이스아레나 믹스드 존에서 일했던 한 달

1월 31일, 새벽 일찍 AD카드 등록과 유니폼 수령을 위해 평창에 있는 UAC(메인 등록센터)로 향했다. 진부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하얀 눈은 올림픽을 실감케 했다. UAC에서 약 두 시간에 걸쳐 모든 물품 수령을 끝내고 한 달 여 동안 지낼 숙소로 향했다. 운이 좋게도 함께 지낼 3명의 룸메이트는 모두 대학생으로,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직종으로 일하게 될 봉사자였다.

아직 어색한 빨간 유니폼을 입고 직무교육을 받으며 첫 근무를 시작했다. 나는 한 달 동안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Press Operation 직무를 맡았다. 그 중에서도 믹스드 존(Mixed Zone)이 내가 일한 곳이었다. 믹스드 존은 연습이나 경기를 마친 선수의 이동통로일 뿐 아니라 취재가 이뤄지는 구역이기도 하다. 경기장에서 연습이나 경기를 마친 모든 선수는 인터뷰 의사와 상관없이 믹스드 존을 통과해야만 한다. 믹스드 존에 배치된 봉사자들은 기자가 기다리는 선수가 누구인지, 선수가 인터뷰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그 둘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기자를 국적이나 사용 언어별로 묶어 취재를 용이하게 하기도 했다. 또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끊어서 경기를 마친 직후 지친 선수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었다. 선수가 항상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펜스 안에서 에스코트하고 인터뷰 마이크를 대신 들어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명한 선수를 취재하기 위해 모인 많은 기자들의 녹음기나 휴대폰을 대신 들어주기도 한다. 선수의 편의 못지않게 기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나는 강릉 아이스아레나의 경기용 메인링크, 연습용 링크에 각각 딸린 두 개의 믹스드 존을 관리했다. 아이스아레나에선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만 진행되는데 피겨스케이팅의 연습과 경기는 주로 오전에, 쇼트트랙은 오후에 이뤄졌다. 오전 근무인 나는 피겨 선수와 접할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개막 전부터 연습 일정에 따라 믹스드 존 담당 봉사자들은 두 개의 믹스드 존을 번갈아 가며 관리했다.

연습은 필수 참석이 아니었기에 선수도, 기자도 얼마 없었다. 그래서 선수들의 연습을 지켜볼 기회가 종종 주어졌다. 그 중 북한 선수들이 처음 연습 링크를 방문하는 날이 단연 관심의 중심이었다. 우리나라 김규은, 감강찬 선수도 함께 연습에 참가했는데, 처음으로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대거 모여들었다. 연습 중 남북 두 커플의 동선이 우연히 가까워질 때면 셔터소리가 더욱 커졌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남과 북, 북과 남이야말로 어쩌면 모두가 원했던, 그래서 기자들이 원했던 그림일지도 모른다.

북한 선수의 연습이 끝나자마자 선수를 따라 링크 안에 있던 기자들이 믹스드 존으로 달려 나왔다. 한마디라도 물어볼까 쫓아가며 질문하는 기자들의 간절함이 무



①아이스아레나 전경 ②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경기 후 메달리스트들의 기자회견 ③자원봉사자의 AD카드와 बै지 ④믹스드존 자원봉사자들과 헤어지기 전 기념촬영

색할 만큼 그들은 쓴살같이 믹스드 존을 빠져나갔다. “김연아가 와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하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처음 느껴본 취재 열기였다. 이 열기는 개막이 다가올수록, 경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뜨거워졌고, 선수가 있는 곳엔 항상 기자들이 따랐다.

2월 9일, 평소보다 이른 시간 하루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폐막까지 내 기상시간은 5시였다. “전 보다 기자들이 5배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믹스드 존 매니저의 경고에 봉사자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출입해선 안 되는 사람이 출입하는 것은 아닌지, 사진을 찍어선 안 될 사람이 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수의 동선은 어떤지 확인하느라 한 순간도 숨 돌릴 틈 없었다. 남자 피겨 싱글 첫 번째 주자는 우리나라의 차준환 선수였다. 손님을 맞는 기분으로 모두가 차 선수가 믹스드 존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일말결에 내가 인터뷰 마이크를 잡아주게 됐다.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걷는 선수를 미처 따라잡지 못 하고 뒤늦게 엉겨주춤 선수 옆에 자리를 잡았다. 스케이트 조차 벗지 못한 채 우뚝 서 있는 선수의 얼굴 가까이 마이크를 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내 바로 옆에는 차 선수, 앞에는 차 선수만을 바라보는 수십 개의 눈과 카메라들. 선수 못지않게 긴장했던 터라 팔은 덜덜 떨리고 인터뷰 내용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마친 선수를 믹스드 존 끝까지 에스코트해 나란히 걸어가며 느낀 뿌듯함과 설렘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올림픽 2주 동안 나를 움직인 원동력이 됐다.

인터뷰를 도우며 만났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

팀 이벤트 경기가 끝나고 페어, 맨 경기가 진행되면서부터는 믹스드 존에서의 업무가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읽기조차 어려웠던 선수들의 이름과 얼굴이 익숙해지고 아는 기자들도 생겼다. 기자들 역시 안내하지 않아도 암전히 펜스 앞에 자리를 잡고 선수를 기다렸다. 인터뷰를 마치고 믹스드 존을 빠져나가는 선수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해요”하는 인사쯤을 쉽게 건네는 여유도 가지게 됐다. 특히 각 나라의 언어로 인사를 건넬 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하는 대답이 돌아왔을 때, 한국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있는 순간이 자랑스러웠다.

아이스아레나 Press 부서 전체 봉사자는 약 30명이었지만 믹스드 존에 배당된 인원

은 오전, 오후 팀을 합쳐서 10명 정도였다. 대부분은 대학생에 같은 나이대여서 쉽게 친해졌다. 그 중에 러시아와 미국에서 온 외국인 봉사자가 각각 한 명씩 있었는데, 타국에서 열린 올림픽 봉사에 참여한 만큼 그들의 피겨 종목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특히, 미국에서 온 Paige는 10년 동안 피겨를 했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온 Alla는 ice dance 종목의 굉장한 팬이라고 했다. ‘피겨 무식자’였던 나를 포함해 다른 봉사자도 선수들의 연습과 인터뷰를 지켜보며 피겨 기술 하나 돌쯤은 외울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선수 한 두 명은 품게 됐다. 출신 국가는 상관없었다.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경기 중에 넘어지진 않을가 노심초사하고 그 선수와 사진이라도 남기기 위해 기회를 노렸다.

근무 중엔 선수와 사진을 찍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가 끝난 후 선수의 연습 시간을 노리거나, 아니면 단지 우연히 마주치기를 기다려야 했다. AD카드 뒷면에 사인을 받기 위해 주머니 속에 항상 펜을 소지하고 다니기도 했다. 선수들이 삼엄한 경비 속에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며칠만 노력하다 보면 대개 성공을 이룬다. 연예인보다 보기 어려운 운동선수들과 사진을 찍는 잠깐 동안의 시간, 그리고 영원히 남을 한 장의 사인은 올림픽 기간 동안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중 하나였다.

봉사자에게도 예의 없는

모두의 축제 올림픽

믹스드 존에서 일한 나는 정작 경기를 직접 볼 수는 없었다. 봉사자로 참가했지만 합성소리를 그저 듣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다.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오전 근무였던 나는 오후에 진행되는 쇼트트랙 경기를 보기 위해 두어 차례 추가근무를 한 적이 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 있어야 했지만 어찌면 평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Press 직군이 담당해야 했던 기자들도 스타트를 알리는 총성과 함께 흘러듯 경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순간만은 감히 관중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쇼트트랙은 우리나라가 강세인 빙상 경기였고 관중 역시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 우리나라 선수가 역전을 시도할 때 경기장을 울리는 합성소리는 TV로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이 피곤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경기와 상관없이 Press 부서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1초라도 빨리 올림픽 소식을 전하려는 기자들의 업무에 밤낮이란 없었기 때문에 아이스아레나에서 근무하는 봉사자들 중 우리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다. 매일이 바빴지만 최소 4번의 휴무일은 보장됐다. 방학에 어울리지 않는 기상시간을 유지한 탓에 첫 휴무일은 오롯이 잠을 보충하는데 썼다. 두 번째 휴무일엔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 बै지를 수집하러 다녔다. बै지 수집은 올림픽 참가자들이 저마다 열을 올리는 ‘부업’이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배지는 곧 ‘권력’

올림픽 기간 내내 걸고 다녔던 AD카드 목걸이 줄에 달린 बै지의 개수와 희귀성이 곧 ‘권력’이라는 말도 있었다. 올림픽 파크의 여러 기업 부스를 돌아다니며 하나 둘 수집하다 보면 그 말에 어느새 동의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운이 좋으면 बै지 수집가 할아버지를 만나 올림픽 파크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한 बै지를 얻을 수도 있었다. 근무 중에는 미국 기자 한 명에게 가서 오륜기 모양의 बै지를 얻기도 했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로웠고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근무가 바쁘지 않는 날에는 일찍 숙소로 돌아와 룸메이트와 야식을 먹으며 TV로 경기 중계를 보는 낙이 있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영광스러웠지만 항상 옆에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료 봉사자들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부터 온 기자들을 무사히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 덕분이었다.

‘피겨’는 ‘김연아’ 밖에 몰랐던 나에게 피겨 기술과 선수 정보 등을 알려준 그들 덕에 업무를 즐길 수 있었다. 믹스드 존이 질서있게 운영될 수 있게 지도를 잘 따라준 선수들, 기자들, 그리고 다른 부서 봉사자들까지. 한 달 동안 만났던 모든 이들이 나에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 마지막 피겨 경기가 있었던 2월 23일, 우리의 공식적인 업무는 끝이 났다. 근무는 끝났지만, 이번 평창 올림픽은 ‘한국’의 올림픽으로서, 그 전에 ‘나의’ 올림픽으로서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